

# 역사적 사료의 취급

## “역사의 보존”

저자 : 마그 하네스 바이넬트 - 그로스  
(오스트리아 쉥 플로리안에 있는 스타이어마르크 주 소방박물관 관장)

### 서 론

6, 70년대 현대화의 붐이 일면서 대단히 가치있는 역사적 사료들이 손실되었다. 오래된 장비와 문서들은 쓰레기통에 부주의하게 버려지거나 베틀시장에서 팔려나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스트리아의 소방박물관과 전시관을 꼭 채우는 역사적 사료가 있다는데 대해 오직 몇몇 수집가들과 선견지명이 있는 소방관들만이 감사를 받을 만하다.

그러나 80년대에 이르러 각 소방대에서는 이미 역사적인 인식이 늦게나마 자리잡게 되었다. 100주년을 기념하는 추세로 인해 사람들은 역사적 기록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오래된 사진들을 꺼내 보이고 오래된 장비들을 깨끗하게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전통관을 설치하고 역사물 전시행사를 열거나 수많은 예전장비전시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좋은 의미에서 역사적 사료를 보존하는 것은 필수 전문지식에 속한다.

무엇을 왜 그리고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보존 전문가나 큰 박물관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임의로 짐작하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뭘 물어보면, 2가지 질문에 3가지 생각을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 1. 무엇을, 그리고 왜 보존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한 눈에 척 보고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가) 보존할 가치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보존을 하고자 한다

나) 보존에 필요한 돈과 인력 그리고 장소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보존할 능력이 있다

#### 가)의 경우(보존할 가치를 느껴서 보존)

이것은 수집가들, 특히 박물관의 수집가들의 정책과 일치하지만, 다음과 같은 지표가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역사적 가치 - 사료가 소방역사전달에 있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2. 물질적 가치 - 그 재료의 가치는 어떤가?(금, 은, 특수종이 등)

3. 예술적 가치 - 글, 검, 장식 손도끼, 뿔나팔 등
4. 희 소 성 - 같은 물품의 양이 적을수록 사료의 가치는 높아진다.
5. 인물적 가치 - 사료가 특별히 공로가 많거나 의미 있었던 소방대원의 것인가?
6. 지역적 가치 - 사료가 그 소방대/지역/주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최근의 역사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현재의 것이 수십년 뒤에 아주 귀중한 과거의 것이 된다는 것을 잊고 있다.

### 나)의 경우(보존할 능력이 있어서 보존)

우리가 하나의 사료를 보존하고자 할 때, 우리가 그럴 형편이 되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금전적인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소방협회나 지역연합회 등 적절한 곳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거나 개인 또는 업체의 후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운영인력은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서나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어느 경우든 애매한 문제는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브레겐츠, 인스부르크, 클라겐푸르트, 잘츠부르크, 그라츠, 아이젠슈타트, 빈에 있는 박물관, 문서고 등에서도 조언을 구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전시장이나 보관소 등의 장소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보존해야 할 장비나 차량이 문제가 되는 경우, 주변이나 다른 수집가나 박물관의 공간이라도 장소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가?

### 2.1 작은 용어사전

**문서기록** : 글과 사진으로 적절한 방법을 통해 공개할 것을 요한다. 전시물을 대여할 경우 인도시점부터 반환시점까지 사료의 증빙서에 모든 상황과 상태를 기록하여야 한다.

**방부처리** : 유동성을 가진 고형물을 수분, 파열 및 다른 물질의 침투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보존** : 사료에 적합하고 견고하며 가역적인 방법으로 최소한의 처치로서 형태와 질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전이다.

**부식** : 이화학적 영향(예 : 철의 녹)으로 인해 재료가 훼손되는 것

**개선** : 사료의 외관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이유가 명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의 사료는 잃어버리게 된다.

복원 : 원래의 형태가 되살아나도록 하기 위해 덧칠과 같은 불필요한 변경작업은 배제하고 채색은 되살린다.

예방적 보존 : 올바른 배열이나 저장 외에 환경적 요소를 감독 및 조정, 안전예방을 포함

## 2.2 원칙

원칙적으로 사료를 보관 및 보존해야 한다. 몇몇 경우 시간을 거쳐 오면서 훼손된 사료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예를 들자면, 원래의 색을 나타내기 위해 새로이 만들어진 색을 벗겨내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오직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선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다리에서 떨어져 나온 회생 불가능한 썩은 부분의 대체를 들 수 있다.

## 3. 주요 위험요인과 기본적인 주의사항

### 기후와 환경

바깥에서는 환경으로 인한 훼손이 모든 자연적 위험요소와 시간이라는 요소로 구성된다. 안에서는 환기, 난방, 조명(태양광)을 제대로 못하거나 건물에 결함(습기가 스며드는 내벽이나 단열이 제대로 안된 벽, 밀폐를 제대로 못하는 창문)이 있는 경우, 예방이 가능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상적인 환경은 영상 10~20℃의 온도, 50~60%의 상대습도이며 기후 변동폭이 큰 것은 좋지 않다. 일반적으로 겨울에는 난방이 되는 방에서 건조함에 유의해야 하고, 습도가 높은 여름에는 40%이하 70%이상의 습도는 피하도록 하고 영하의 온도나 25℃ 이상의 온도도 좋지 않다. 정기적인 점검시에 이러한 기상상태 기록과 전기적인 장치들을 확인해야 한다.

### 조명

보통의 일반조명인 햇빛과 인위적인 조명을 통해서 다양한 손상이 발생할 있다 : 변색, 탈색, 섬유 훼손, 누렇게 종이 가 변색되는 등 손상. 그래서 보존적인 측면에서 문서, 그림, 서적 및 섬유류 등은 50룩스 이상의 조명을 비취서는 안된다.(직사광선 - 약 10,000룩스, 전등 - 약 500룩스) 그렇지 않으면 자외선의 영향을 받게 된다.

### 오염

공격적인 물질들로 인해 먼지가 많이 쌓이고 손상이 일어나며 사료의 원형이 훼손될 수 있다. 매연과 다른 물질도 손상의 원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료의 보존과 전시를 위해 필요한 각 방과 전시실을 정기적으로 꼼꼼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사료의 청소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전문인력을 필요로 한다.

### 곰팡이

습기 있는 방, 빛이 들지 않는 저장공간과 움푹 들어간 부분, 그리고 격리되지 않은 벽이나 받침대의 전후면이 위험하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환기를 하는 것이 기본이다. 환기시 건물 안팎의 기후차이로 수분이 축적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 **동물에 의한 손상**

무엇보다도 목재(나무벌레), 섬유(좀), 종이(여러 곤충) 등이 위험할 수 있다. 좀예방을 위해서 환기를 잘 해주거나 증약을 쓰면 되고, 저장고에는 증약을 넣어두는 것이 좋다. 상업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해충퇴치제가 사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나무보호제는 금속표면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심한 식물성 기생병이 발생하면 어느 경우 이걸 전문가와 상담을 해봐야 한다.

### **운송**

소방이라는 분야에 세공품이 없다 하더라도 소방사료의 운송은 - 그것이 튼튼한 장비라 할지라도 - 위험할 수 있다. 사전 및 사후대비를 잘 해야 한다.

작은 사료는 운반시 포장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마분지로 싸서 상자에 넣으면 충분하고 작고 깨지기 쉬운 것은 공기를 채운 비닐 엠보싱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 **잘못된 보전 및 부주의**

어떤 요소보다도 인위적인 부주의와 실수가 가장 중요하다. 부적절하고 세심하지 못한 취급과 적절한 시기를 놓친 보수, 기후와 안전상태에 대한 점검미비, 그리고 잘못된 취급은 결국 피할 수 있는 손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종종 전시물의 접근을 허용하는 공간 이외의 저장소에 대한 보전이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 **4. 각 재질별 취급 - 청소, 보전, 저장**

각각의 재료의 보전을 위해서는 주위환경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중요하다. 제대로 청소하고 보전 및 저장하는 것은 오랜 기간 가장 좋은 재질의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 된다. 포괄적인 보전과 복원 및 개수는 무조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 **4.1 금속**

금속은 소방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에 해당된다. 그 가공과 사용이 아주 다양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후조건의 변화와 부적절로 인하여 훼손과 변형 역시 다양하게 나타난다. 금속성 사료의 경우 취약한 금속표면이 가장 문제가 되어 특별히 세심한 취급이 요구된다. 일반적인 세정제는 시간이 좀 걸릴 뿐 금속표면을 가장 잘 훼손시키는 재료이다.

올바른 보전은 더 큰 손상을 막을 수 있게 한다.

박물관의 금속성 사료는 반드시 장갑을 끼고 만져야 한다.

#### **4.1.1 철**

철은 예전 장비에서 가장 쉽게 접하게 되는 것이다.(갈쿠리, 말편자, 등, 도끼외에 마차, 소방차, 수동펌프의 일부재료로 사용되었다.) 철에 있어 가장 큰 손상원인은 녹이다. 대기중의 산소나 수분으로 인해 주철이나 단철은 가장 쉽게 산화가 된다. 여기에 연분홍 녹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수분을 포함한 불안정한 산화철 성분이다. 가급적 철에 칠을 하는 것이 좋고

아주 세심하게 청소하여 한다.

#### **청소와 보호**

녹을 제거하는 것은 전문가에 의해 기계적, 전기분해적, 화학적 처리에 의해 진행될 것이다. 청소가 끝난 사료는 덮개를 씌워서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방청제를 칠한다. 사료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보전을 위해 밀납, 기름, 색칠, 합성수지를 사용할 수 있다.

#### **4.1.2 구리**

구리와 그 합금(청동, 황동) 역시 자주 볼 수 있다. 공기통, 관창 등의 장비외에 헬멧, 훈장, 모형물에서 볼 수 있다. 구리, 청동, 황동 모두 세월이 지나면 자연적인 녹이 생기는데 이것은 제2산화동으로 된 보호층이다. 이 얇은 층은 대기 중 수분이 아주 많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산성 오염물질이나 암모니아가 포함되지 않으면 유지가 되고 가장 좋은 자연적 보전이 될 것이다.

#### **보전**

구리의 녹청이 동시에 자연적인 보호막이므로 이것이 가능한 한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시킨다. 다만, 먼지나 매연 등은 비눗물이나 솔로 제거를 해야 할 것이다. 구리와 황동 재질의 사료는 녹청을 통해 온화한 색조를 띠게 되고 사료를 청소하면 옛것의 가치를 종종 잃어버리는 화려한 모습을 갖게 된다.

#### **청소**

다채로운 색상을 가진 금속에는 상업적으로 널리 쓰이는 세정제를 쓸 수 있다. 결코 사포나 철수세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을 하는 작업이다. 훼손없이 청소를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자연재료를 이용하는 것이다.

- 구리는 소금물에 담궈 둔 레몬
- 황동에는 4스푼의 식초를 0.5리터의 물에 희석한 것을 사용

청소를 한 뒤 잘 말린다.

#### **4.1.3 금**

금은 소방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것이다. 다양한 장식물에 금도금을 한 형태의 훈장에서 볼 수 있을 뿐이다.

#### **보전**

금을 망거뜨리는 가장 큰 적은 유액처럼 보이는 청소제로 여기에는 마모제 성분이 있어 얇은 막을 금에서 벗겨내게 될 것이다. 초록빛이나 검은 막이 생기는 것은 가치가 떨어지는 금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 **청소**

특히 구슬이나 에나멜이 박힌 장식물을 비전문가가 청소를 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반대로 단순히 윤기나는 사료는 세척제에 담구거나 솔이나 수건으로 닦는 방식으로 잘 청소하면 된다. 세척제로는 물과 염화암모늄이나 미세세정제를 섞은 것을 쓸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수돗물로 씻고 무명이나 아마 수건으로 닦아 말린다.

#### 4.1.4 은

금에 비해 은은 환경적인 조건에 대한 영향을 쉽게 받는다. 표면이 검게 부풀어 오른 것은 공기중의 황화수소로 인해 황화은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부제 주입, 젖은 벽, 색소 등은 이러한 산화를 촉진시킨다.

#### 보전

오직 전문가로 하여금 방청제를 칠하게 하는 것만이 녹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단점이 있어 그리 추천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 청소

청소제로는 금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을 사용한다. 우묵패인 곳은 청소제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부드러운 칫솔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 4.1.5 주석

주석도 그리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방을 주제로 만든 접시, 잔 등 정도이다.

#### 청소

많이 더러워진 것은 따뜻한 비눗물과 부드러운 솔로 제거한다. 상업적으로 많이 상하는 은 청소제나 세척가루는 표면을 마모시킨다.

#### 저장

주석은 습도와 온도 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결코 오랜 시간동안 13°C이하로 유지되어서는 안된다.

#### 4.1.6 크롬

크롬은 기본적으로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금이나 은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

### 4.2 목재

나무는 소방에서 많이 사용했던 재료에 속한다. 그 사용 범위는 갈쿠리의 손잡이에서부터 아주 가치가 높은 성 플로리안 조각입상에 이른다. 유기물은 두 가지 면에서 영향을 받는다.

하나는 전체가 훼손을 당할 지경에 이르게 하는 기후이고 나머지 하나는 나무를 파괴하는 곤충이나 곰팡이들이다.

#### 기후로 인한 손상

나무는 온도와 대기상대습도의 변동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 공기가 습하면 나무는 물을 먹고 부피가 늘어난다. 공기가 건조하면 물이 빠져 나가고 수축을 한다. 기후조건의 변동은 나무내에 기계적인 긴장이 생겨 아주 빠르게 분열하고 균열이 생기게 할 수 있다.

### **나무를 훼손하는 곤충으로 인한 손상**

나무를 훼손하는 곤충들의 유충이 나무를 먹어 치우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모든 목재 사료들은 지속적으로 나무벌레가 번식하는데 도움이 된다. 가장 좋은 것은 해충이 날아다니는 시기에 맞춰 나무의 구멍에서 새로 생긴 가루들을 털어내어 유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예방적인 차원의 조치로는 취약한 부분에 액상 나무보호제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독성성분이 유충과 성충을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알은 죽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몇 주 뒤나 다음 해에 알에서 애벌레가 나올 시기에 맞춰 다시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의 : 나무보호제는 거의 예외없이 인체에 해롭다. 게다가 금속표면에도 안좋다.

### **곰팡이로 인한 훼손**

구별을 해야 하는 것은 나무표면에 살면서 세포조직물로 먹고 살지만 목재를 공격하지 않는 곰팡이들이다. 겉표면에는 파란 줄과 같은 색깔의 변화가 나타난다. 단단한 버섯이 이것 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이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건조한 대기 속에서도 살 수 있다.

살기 위해 이 버섯들은 물을 필요로 하는데, 이 물이 바로 나무로부터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들이 나무에만 붙어 살기 때문에 균사의 번식은 나무를 완전히 훼손할 수 있다.

### **청소와 보전**

기본적으로 갈퀴, 도끼 등의 도구와 조각입상과 같이 만들어낸 형상물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이 없는 나무막대, 사다리, 목재펌프, 마차의 경우, 물과 청소솔로 작업을 할 수 있다. 금속부분은 미리 분해를 해 놓고 부가적인 청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성 플로리안과 같이 오래되고 가치가 많은 조각입상과 같이 훌륭한 전시물은 부드러운 솔이나 무명으로 된 청소 도구로 청소할 수 있다. 이미 채색이 떨어져 나가거나 부풀어 오른 경우 더 이상 청소를 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복원을 한다. 떨어져 나간 부분은 가능한한 신속하게 붙여 복원작업을 해야 한다.

### **저장 및 전시**

저장과 전시는 가능한한 온도와 습도(45~55%)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대기습도는 환기나 배기를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유지를 할 수 있고 실내난방을 할 경우에는 온도에 신경써야 한다.

전시를 할 때는 조명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조명이 너무 강하면 직사광선이나 광학적 과정을 통해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4.3 섬유류**

섬유는 소방대의 유니폼과 기 등의 소재가 된다. 또한 오래된 섬유재질의 불끄는 물통도 여기에 속한다. 섬유는 특별히 민감한데, 오래될수록 부서지기 쉽고 결국에는 떨어져 나가게 된다. 여러 가지 환경의 영향이 되돌이킬 수 없는 이러한 과정을 가속화시킨다.

### 손상의 원인과 그 영향

빛은 섬유유연성의 유연성을 잃게 하고 부서지게 하여 손상을 가져온다. 색소는 빛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하얀 재질은 노랗게 된다.

기후조건을 잘못 조절하면, 예를 들어 60%이상의 너무 높은 습도는 목재해충이 번식하고 곰팡이 얼룩이 생성되는 영향을 일으키고 50% 이하로 건조하게 만들면 다시 섬유유연성은 부서지기 쉽게 될 것이다.

곰팡이나 버섯, 좀벌레, 진드기 같은 해충은 섬유유연성에 구멍을 만들어 손이나 세탁기로 화학물질을 이용해 잘못 세척할 경우 조직이 수축하는 수선불가능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 보전

섬유유연성에 가장 좋은 기후조건은 15~20℃의 온도와 50~60%의 상대습도이다. 곰팡이의 생성과 해충의 번식은 환기를 잘 해주고 해충박멸제를 사용하여 예방할 수 있다. 1년에 두 번 섬유유연재질의 사료를 함에서 꺼내고 하루종일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다. 섬유유연재질이 자연광이나 인위조명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다.

박물관이나 다른 전시관에서 지속적인 조명의 강도는 50룩스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저장할 때는 환기가 되는 격리된 곳에 놔두는 것이 좋다. 바지, 기 등은 눕혀 놓고 외투나 옷은 걸어 놓는다. 특별히 가치가 있는 전시물에 대해서는 덮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공기가 투과되는 비닐자루는 섬유유연재질에 화학적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어깨걸이형 옷걸이는 피복을 보존하기에 좋아서 주름이나 균열을 방지하고 재료의 변형을 방지한다. 단단한 재질의 유니폼은 옷솔이나 롤형 보풀제거기로 청소할 수 있다. 세척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소방대기는 직물복원전문가와 의논하여 보존해야 한다.

### 4.4 종이

종이는 나무 및 섬유유연재와 아주 관계가 깊은 섬유유연재 물질이다. 기계적, 화학적 영향에 상당히 민감하다. 섬유유연재도 마찬가지로 손상되는 과정이 있으나 되돌리키기가 훨씬 더 어렵다. 복원은 손상을 중단시키고 손상된 부분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 손상의 원인과 그 영향

사용으로 인한 손상은 종이를 부주의하게 다룸으로 인해 나타난다. 여기에는 구김, 찢김, 구멍 등이 포함된다. 먼지, 매연, 손자국, 잉크, 기름, 녹, 파리 배설물 등이 더러워지는 원인이 된다.

환경적인 손상이 안좋게 나타날수록 종이의 질은 더욱 나빠진다. 인위적인 조명과 태양의 직사광선은 셀룰로오스의 손상을 일으키고 잉크를 퇴색시키고 다른 색소도 퇴색시킨다. 동시에 종이에 산도가 높아지고 해체되기 시작한다. 너무 높은 대기습도는 박테리아와 버섯 등을 증식시키지만 너무 건조하면 종이가 부서지기 쉽게 된다. 화학적인 손상과 종이의 산도 증가가 잉크나 인쇄된 검은색을 퇴색시킬 수 있다.



버섯과 박테리아는 65%이상의 습도와 잘못된 대기순환에 의해 증식할 수 있다. 버섯은 셀룰로스와 결속제를 먹고 살고 종이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적절하지 않은 재료의 사용은 부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복원의 훼손을 가져오는데, 가장 흔한 예는 투명한 접착제와 테이프의 사용이다.

찢겨진 종이는 결코 투명, 불투명 상관없이 테이프로 접착해서는 안되는데, 그 이유는 접착제의 일부가 종이를 변색시키고 부서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도 종이를 핀으로 찢러 전시를 해서는 안된다.

### **곤충**

서고에는 다양한 종류의 곤충들이 산다. 이들 가운데는 거미, 게벌레, 진드기 등 버섯의 증식을 막아주는 것들도 있고 좀벌레, 바퀴벌레, 나무벌레 등 종이에 피해를 주는 것들도 있다. 책이나 종이재질의 사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거미줄에 걸린 곤충의 종류를 보고 알 수도 있을 것이다. 유충이나 갑충은 다들 해롭다. 또한 설치류는 종이재질의 사료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 **저장**

종이재질의 사료를 주의깊은 취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가장 좋은 기후조건은 10~20℃의 온도와 40~65%의 상대습도이다. 목재로 된 저장실에는 냉난방기를 설치해 주어 온도와 습도의 급격한 변동을 없애면 금속으로 된 저장실보다 더 나을 수 있다. 그리고 먼지, 설치류 등으로부터 보호가 되어야 한다. 해충은 무조건 박멸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투명한 비닐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재질을 취약하게 만드는 성분이 있고 종이의 파손을 가져온다. 산도가 없는 두꺼운 종이상자안에 산도가 없는 종이를 같이 삽입시켜 보관한다.

## **5. 사진**

사진은 종이라는 주제에 있어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어 위험성, 취급과 보관요령이 방대하다. 사본을 만드는 것은 쉬우므로 원본은 저장소에 보관하도록 하되 산도가 없는 봉투에 넣어 다시 상자에 넣어 둔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진관에서는 사본을 만들 수 있더라도 가치있는 역사적 사료가 대상이므로 역사적 사진을 취급하는데 있어 신뢰와 확실한 숙련도가 필요하다. 적절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면 사진을 직접 찍고 필름으로 작업할 것을 권한다.

## **6. 모터로 가동되는 차량과 장비**

차량과 장비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사용할 지침을 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구별해야 할 것은 모터로 구동되는 차량과 장비를 단지 저장만 할 것인지, 전시나 운용까지 하고 싶은 것인지이다.

## 저장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청결하고 시원하며 너무 밝지 않을 것을 권한다. 너무 높은 열과 강한 빛은 도색이나 고무 재질에 악영향을 준다. 차량은 차대, 바퀴, 스프링의 부담을 없애기 위해 받침을 바닥에 대어 들어 주는 것이 좋다. 저장을 하기 전에 바닥을 청소해 주어야 한다. 윤활유와 모터오일은 탱크에 채워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한다. 그리고 연료통 밑에 받을 것을 대어 누출에 대비하는 것도 좋다.

## 전시

전시를 위해서도 역시 시원하고 건조하며 너무 밝지 않은 방이 좋다. 차량은 무조건 받침을 대어 올려야 한다.

차량과 장비는 사용이 되었던 그 때의 상태로 전시가 되어야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청소를 해서 지나치게 새 것 같아 보이고 화려한 빛이 나는 것은 안된다. 원래의 장비 옆에 사진과 설명, 그리고 설계도가 있는 안내판이 있는 것이 좋다.

## 운용

모터로 가동되는 차량과 각각의 장비가 가동이 되어야 할 경우 단순히 광범위한 지식이나 초기 정비와 수선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차량과 각각의 장비에 대하여 신경을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장비가 손상될 것이다. 게다가 핸드북에 있는 관련 전문 내용을 모은 책자의 비치도 필요하다. 어느 경우든 기계기술자의 전문 지도와 좋은 정비체가 필수적이다.

모든 차량과 장비는 몇몇 경우 한정적으로 운용이 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 분야에서 가장 전문적인 권위가 있는 곳은 빈에 있는 기술박물관이다.

# 소방박물관의 정의

- CTIF 역사위원회 정의 자료 -

## 1. 서론

### 1.1 역사와 전통의 중요성

자신의 뿌리를 아는 사람만이 현 상황과 미래의 발전상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소방에도 마찬가지다.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은 우선적으로 실제 활약상, 훈련과 장비에 쏠리게 된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기원에 관한 자료를 모아 보여주는 소방서와 소방협회는 축하를 받아야만 한다. 역사를 보여주고 현대의 소방활동기술로 연결되는 전통을 유지하는 것은 홍보관으로 나타나게 된다. 각 소방서의 세대에게 있어 소방역사의 물질적 기억의 소산인 물건들과 장비를 기술적으로 유지 및 보존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소방박물관은 과거와 현재에 있어 소방의 중요성과 그 업무를 보여주고 위험한 상황에 이웃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의지에서 성장한 조직화된 응급서비스가 그 사회에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있어 필수적인 조건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 1.2 ‘소방박물관’의 용어에 대하여

하나의 박물관에서 하는 일은 수없이 많으며 다양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지역을 초월한 중요성과 주도적인 전문성을 갖춘 대형 소방박물관이 많이 있다. 작은 소방박물관들과 마찬가지로 전시실, 특별전시품들이 발달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박물관이라 하지 않는다. 어떤 언어로 일반적으로 규정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만들어지는 정의에 따라 방문객들은 그들이 있는 곳이 어떤 종류와 어떤 크기의 것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작은 전시관들의 가치를 깎아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 반대이다. 소방대의 역사와 그 문화를 보존하고 출판하는 것은 공통의 중요한 목적을 남긴다. 소방대는 지역적 또는 광역적 소방협회뿐만 아니라 가장 작은 소방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들의 총체성은 예측할 수 없는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CTIF의 여러 회원국에는 국가에서 정한 법률부터 소방서의 개별규정에 이르는 기존 조건들 또한 고려가 되어야 한다.

가장 포괄적이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박물관의 정의는 국제박물관협의회 ICOM(1974년 7월 14일 코펜하겐 11차 총회에서 승인되어 1986년 11월 4일판 3항, 4항에 규정):

‘박물관이란 영구적인 사회와 그 발전에 봉사하는 비영리의 기관으로서 대중에게 개방되며 학문, 교육, 재미를 목적으로 인간과 환경의 물질적 증거물들을 습득, 수령, 탐구, 증진, 전시하는 것이다.’

## 2. 이러한 정신에서 다음의 정의는 소방대에 유용하다.

### 2.1 기록보관소(Archives), 저장소(Depot)

소방이라는 주제로 물건들이 모이는 곳으로 아무리 작은 수집품들이라 하더라도 보관할 장소가 필요한 것이다.

기록물보관소에는 문서, 협정서, 문학작품, 사진 등의 2차원적인 기록들이 전문적으로 순서에 맞게 등록되고 보관된다. 이것은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원이 되며 전문 보관인에 의해 관리된다. 동의하에 학자들에게 연구의 기회가 부여된다.

저장소에는 소방대가 예전에 쓰던 3차원적 물품을 보관하는 곳으로 전시하지 않고 안정적이고 안전한 곳에 주의를 기울여 관리한다. 이것은 또한 예전에 쓰던 크고 역사적인 장치를 보관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어떤 경우(소방대 개설 기념식)에는 잘 유지관리된 귀중품을 소방대에서 안전한 장소에 배치하여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 2.2 전통관(Tradition Room)/ 전시관(Display Cabinet)]

보전, 기념, 기억을 위한 공간으로 한 소방대나 소방협회의 전통관이나 전시관은 기술장비, 제복, 문서, 깃발, 사진, 인쇄물 등 어떤 소방대에서 사용했던 것들만 전시한다. 전시가 되지 않는 물건들은 기록보관소나 저장소에 배치된다. 물건들은 하나의 목록에 등재되며 전문가에 의해 관리된다.

## 2.3 수집관(Collection), 수집전시관(Show Collection), 영구전시관(Permanent Exhibition)

헬멧, 휘장, बै지, 장식, 인장, 펌프, 옛날 물품 등의 특별한 수집품들만 모아놓은 것을 이렇게 부른다. 이것들은 하나의 소방대를 넘어서, 또 지역을 넘어서 모은 물건들이다. 수집가들은 그들이 가진 물건들에 대해 특별한 지식이나 문헌을 가지고 있다. 이곳을 방문하는 것은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어떤 수집관이 일반인들에게 영구히 개방되어 있을 경우 이를 수집전시관 또는 영구전시관이라 부른다. 수집관은 한 소방대나 개인이 설립할 수 있다.

## 2.4 소방박물관(Fire Brigade Museum)

소방박물관은 질적인 면을 나타내는 용어로 국제박물관 협의회(ICOM)의 정의에 따라 다음의 고전적인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 수집
- 보전
- 연구
- 증진

소방박물관은 여러 시대를 거쳐 지역을 초월하여 목적을 가지고 물품을 수집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며 소방대의 기술적인 발전과 인도적인 업무를 묘사한다. 더 나아가 소방대 활동의 발달과 오늘날 그 임무수행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에 대한 문서도 보여줘야 한다.

이것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소방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술발전을 보여준다. 그것은 나라와 크고 작은 그 지역사회에 있어 개인과 집단, 단체를 위해 행했던 소방대의 모든 활동 영역을 서술한다. 이러한 복잡성은 방문객과 학자들에게 비교해 볼 수 있는 동등한 가능성을 부여한다.

한 팀의 피고용자들이 박물관을 이끌고 연구에 매진한다. 이러한 작업은 성취한 경험을 적절하게 출판하거나 특별 전시회를 가지는 결과로 나타난다.

수집, 목록작성, 보존, 보관 및 연구 외에 증진과 학습의 측면이 박물관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 박물관에 대한 새로운 철학의 성립 이후 ‘더 적은 것이 때때로 더 많은 것(Less is often more)’이라는 기본 규칙이 지켜지고 있다. 이 말의 뜻은 때때로 특별히 선택된 물건 하나가 방문객에게 똑같거나 유사한 것 여러 개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다.

학습의 가능성 여부는 전시된 물품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고 간결하게 하는

것에 달려있다. 가능하다면 방문객들이 만져보거나 시험 작동해 볼 수 있는 물건들을 몇 개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전시되지 않는 물건들은 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박물관의 법적 소유자는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 소방대, 사적단체, 또는 개인이 될 수 있다.

#### **박물관이라는 용어에 맞는 이상적 조건**

-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전문적인 사람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 고정된 정규 개방시간
- 소장품들의 체계적인 정리
- 박물관의 물건들을 과학적 연구 또는 출판활동 등으로 전환
- 학자들에게 기록물들을 연구토록 승인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다른 소방 수집관들과 박물관이 연합을 하여 전자적으로 지원되는 수준의 교류를 할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보완해 주고 경험을 영구히 교환하는 것이 유지될 것이다.